

지역별 특화를 위한 단기소득임산물 선정  
- 강원내륙산간권역을 대상으로 -

김준순\* · 이재근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Selection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 Focused on Gangwon Inland Mountains Area -

Joon-Soon Kim\* and Jae-Keun Lee

Colleg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강원내륙산간권역인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차별화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생산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송이버섯, 생표고, 밤, 잣, 도토리, 수지, 산양삼, 고사리,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수액, 목초액 등 14개 임산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별 품목 비중과 품목별 지역의 비중, 산업연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입지계수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임산물계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춘천시에서는 밤, 원주시와 평창군에서는 생표고, 홍천군에서는 잣이 선정되었다. 횡성군과 화천군에서는 더덕, 철원군에서는 도토리가 선정되었다. 양구군에서는 취나물, 인제군에서는 수액이 선정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regional distinctive 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 in Gangwon Inland Mountains Area. It was considered as NTFP Pine mushroom, Raw Oak Mushroom, Chestnut, Pinenut, Acorn, Resin, Cultivated Mountain Ginseng, Fernbrake, Chinese bellflower, Lance asiabell, Angelica, Aster scaber, Sap, Wood Vinegar. Regional weight, item weight and forest products quotient were used for the selection of NTFP. Forest products quotient was an application of Location Quotient that is used Input-Output analysis. As a result, Chestnut was selected in Chuncheon. Raw Oak Mushroom was selected in Wonju and Pyeongchang. It was selected Pinenut in Hongcheon, Lance asiabell in Hoengseong and Hwacheon, Acorn in Cheorwon, Aster scaber in Yanggu and Sap in Inje.

**Key words :** 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 location quotient, forest product quotient

서론

우리나라의 산림은 지난 30여년간 치산녹화정책으로 2005년 기준 국토면적(약 996만ha)의 약 65%(641만ha)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산물 생산액은 3조 471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0.4%를 차지하고 있다.

임산물 중 용재판재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산주 입장에 서는 매우 긴 기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이경일, 2003).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 시간의 증가 등으로 휴양 및 공익기능, 웰빙과 같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적 자연산물인 임산물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섭취 가능한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은 연 평균 2.6%씩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약 9,359억원으로 순임목생장액과 조경수를 제외한 임산물 생산액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소득임산물 중 인기 있는 품목의 생산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시키기 보다는 무분별한 생산으로 인한 공급과다로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특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입위주의 단기소득임산물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im@kangwon.ac.kr

은 그 동안 관세구조와 교역현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장철수·이상민, 2006; 어명근·장철수, 2005).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단기소득임산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임산물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윤화영, 2005; 김의경·정병현·김대현, 2000).

본 연구에서는 강원내륙산간권역<sup>1)</sup>에 속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선정하여 지역 간의 차별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연구자료 및 방법

### 1. 대상지역 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강원도 전체 시군 중에서 강원내륙산간권역인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9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2. 임산물 생산액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은 총 14개 품목으로 송이버섯, 생표고, 밤, 잣, 도토리, 수지, 산양삼, 고사리,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수액, 목초액을 선정하였고 각 품목의 생산액을 이용하였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 경향을 파악하려면 일정 연도 이상의 누적된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최근 새로운 관련 정책과 지원으로 인하여 과거에 치중하면 현실에 맞게 특화품목을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은 특정 연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산불, 풍수해, 서리 등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 간 연 평균생산액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생산액은 산림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임산물생산통계를 이용하였다.

### 3. 특화 임산물 선정 방법

#### 1) 지역에서의 품목 특화

한 지역에서의 고려되는 임산물들의 생산액 합계에서 특정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가장 높은 품목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PR_{ij} = \frac{X_{ij}}{\sum_{j=1}^n X_{ij}} \quad (1)$$

i: 지역

j: 임산물 품목

$PR_{ij}$ : i지역의 j 임산물의 비율

$X_{ij}$ : i지역의 j임산물 생산액

$\sum_{j=1}^n X_{ij}$ : i지역의 총임산물 생산액

이 방식의 특징은 하나의 지역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주변 지역 간의 차별성을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한 지역에서 생산액이 높은 임산물을 선정할 경우 주변 지역과 특화 임산물이 중복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시장이 큰 경우에는 기후조건과 주변 여건이 유사한 지역들을 묶은 생산자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2) 품목에서의 지역 특화

전체 지역에서의 특정한 한 품목의 임산물 생산액의 합계에서 특정 지역의 해당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LR_{ij} = \frac{X_{ij}}{\sum_{i=1}^m X_{ij}} \quad (2)$$

$LR_{ij}$ : j 품목이 i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sum_{i=1}^m X_{ij}$ : 전체 지역에서 j 임산물생산액

이 방식의 특징은 특정 임산물의 생산액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산 규모가 큰 지역만이 집중적으로 특화됨에 따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

#### 3) 입지계수의 응용

본 방법에서는 9개 시군의 지역별 임산물 생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에서 활용하는 입지계수(LQ)를 응용하였다. 여기서 입지계수는 특정지역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고, 이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의 생산구조를 알 수 있다.

$$LQ_{ij} = \frac{X_{ij} / \sum_{i=1}^m X_{ij}}{\sum_{j=1}^n X_{ij} / \sum_{i=1}^m \sum_{j=1}^n X_{ij}} \quad (3)$$

$LQ_{ij}$ : 입지계수

$X_{ij}$ : i지역의 j산업 생산액

$\sum_{j=1}^n X_{ij}$ : i지역의 총산업 생산액

<sup>1)</sup>산림청은 전국 산림을 권역별로 특화하여 산림관리를 할 목적으로 17개 통합산림관리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강원도의 영서지역의 대부분인 9개 시군을 강원내륙산간권역으로 지정하였다.

$\sum_{i=1}^m X_{ij}$ : 총 경제활동 공간에서의 j산업 생산액

$\sum_{i=1}^m \sum_{j=1}^n X_{ij}$ : 총 경제활동 공간의 전산업 생산액

입지계수 값의 의미는 특정산업의 값이 1을 넘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출되는 산업이고 1이면 지역 내에서 자급 자족하는 산업이며 1 미만이면 다른 지역에서 이입하는 산업이다.<sup>2)</sup>

입지계수의 응용한 형태로 이 때 산업 생산액이 아닌 임산물 생산액으로 바꾸어 활용하였다. 전체 지역에서 해당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임산물의 특화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X_{ij} / \sum_{i=1}^m X_{ij}$  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의 총 임산물의 생산액에 적용하면 고려되는 전체 지역에서 생산된 총임산물 생산액에서 특정 지역(i)의 총 임산물 생산액 비중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는  $\sum_{j=1}^n X_{ij} / \sum_{i=1}^m \sum_{j=1}^n X_{ij}$  특정 지역의 총임산물 생산액이 전체 지역의 임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sup> 만약 어떠한 지역에 임산업 비중이 낮은 반면 특정 임산물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특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된다. 또한 임산업의 비중과 특화의 정도가 비슷한 양상인 경우에는 특화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식 (4)에 의해 도출한 값을 임산물계수(FQ)라 하였다.<sup>4)</sup>

$$FQ_{ij} = \frac{X_{ij} / \sum_{j=1}^n X_{ij}}{\sum_{i=1}^m X_{ij} / \sum_{i=1}^m \sum_{j=1}^n X_{ij}} \quad (4)$$

FQ<sub>ij</sub>: 임산물계수

$\sum_{i=1}^m \sum_{j=1}^n X_{ij}$ : 총 경제활동 공간의 총임산물 생산액

## 결과 및 고찰

### 1. 분석 결과

강원내륙산간권역에서 조사된 14개 품목 중 제일 높은 생산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더덕(47.8%)이고 그 다음으로 잣(12.1%), 목초액(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덕은 횡성군에서 전체 생산액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잣은 홍천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그 다음으로는 인제군, 춘천시, 평창군 순으로 나타났다. 송이버섯은 홍천군이 45%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제군, 양구군, 원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수지는 9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와 횡성군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횡성군이 약 83.8%, 원주시가 16.2%로 나타났다. 생표고는 원주시, 평창군, 홍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밤은 춘천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횡성군, 원주시 등의 순이었다. 도토리는 철원군이 전체 생산액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양삼은 횡성군과 인제군에서 대부분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리는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라지는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릅은 다른 임산물에 비해 비교적 지역간 비중이 고르게 나타났다. 취나물은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액은 인제군이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초액은 횡성군이 전체 생산액의 3/4으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1.5 정도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현황(2003-2005년 자료 평균).

(단위: 백만원)

|     | 송이버섯    | 생표고     | 밤       | 잣       | 도토리     | 수지    | 산양삼     | 고사리     | 도라지     | 더덕       | 두릅      | 취나물     | 수액    | 목초액     | 계        |
|-----|---------|---------|---------|---------|---------|-------|---------|---------|---------|----------|---------|---------|-------|---------|----------|
| 춘천시 | 10.2    | 127.4   | 449.3   | 687.7   | 61.7    | 0.0   | 7.2     | 144.0   | 217.8   | 307.9    | 100.8   | 237.2   | 20.8  | 0.0     | 2,372.0  |
| 원주시 | 298.4   | 1,024.3 | 242.4   | 23.1    | 93.5    | 43.8  | 9.4     | 101.3   | 70.4    | 146.2    | 336.3   | 88.1    | 0.4   | 810.8   | 3,288.4  |
| 홍천군 | 1,504.0 | 405.1   | 41.6    | 4,337.3 | 15.2    | 0.0   | 15.0    | 646.8   | 599.4   | 642.0    | 404.8   | 790.1   | 7.5   | 42.2    | 9,450.8  |
| 횡성군 | 98.8    | 306.5   | 364.1   | 287.0   | 29.3    | 227.4 | 920.3   | 97.6    | 180.6   | 21,009.5 | 320.2   | 284.3   | 3.7   | 2,886.5 | 27,015.9 |
| 평창군 | 64.0    | 478.2   | 0.0     | 592.5   | 100.5   | 0.0   | 118.2   | 99.3    | 104.7   | 1,243.6  | 268.5   | 553.6   | 0.0   | 61.9    | 3,685.0  |
| 철원군 | 0.0     | 0.0     | 34.5    | 43.3    | 1,066.7 | 0.0   | 0.0     | 56.8    | 14.3    | 34.2     | 49.0    | 55.9    | 0.0   | 0.0     | 1,354.8  |
| 화천군 | 0.0     | 279.0   | 70.2    | 10.7    | 28.9    | 0.0   | 37.0    | 282.5   | 147.6   | 1,945.9  | 270.7   | 294.4   | 25.9  | 16.7    | 3,409.5  |
| 양구군 | 440.8   | 9.2     | 90.5    | 68.1    | 4.0     | 0.0   | 0.0     | 296.0   | 258.6   | 1,668.3  | 116.5   | 600.0   | 0.4   | 0.0     | 3,552.4  |
| 인제군 | 923.2   | 98.9    | 116.5   | 1,394.5 | 75.4    | 0.0   | 290.9   | 114.3   | 666.7   | 2,497.8  | 415.4   | 766.2   | 185.7 | 0.0     | 7,545.4  |
| 계   | 3,339.4 | 2,728.6 | 1,409.1 | 7,444.1 | 1,475.1 | 271.2 | 1,398.0 | 1,838.7 | 2,260.0 | 29,495.5 | 2,282.2 | 3,669.9 | 244.4 | 3,818.1 | 61,674.2 |

<sup>2)</sup> 자세한 내용은 이춘근(2006, pp. 67) 참조 요망.

<sup>3)</sup> 수식적으로는 식 (3)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나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sup>4)</sup> 특화정도와 산업의 비중 간의 비교를 식 (4)와 달리 곱의 관계로 표현하면 '품목에서의 지역 특화'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도라지는 인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덕은 횡성군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제군으로 18.2%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홍천군으로 17.7%였다. 두릅은 다른 임산물에 비해 지역적으로 고른 비중을 보였다. 취나물은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액은 인제군이 7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화천군으로 10.6%를 차지하였다. 목초액은 횡성군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에 기반하여 선정된 대표 지역은 수지, 산양삼, 더덕, 목초액 등 4 품목에서 횡성군으로 나타났고 홍천군도 송이버섯, 잣, 고사리, 취나물 등 4 품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구군은 도라지, 두릅, 수액 등 3 품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은 1 품목으로 나타났다. 14개의 임산물에 대해 선정된 특화 지역 중 3 품목 이상인 지역이 3 곳으로 지역적인 편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산업 규모가 큰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3) 입지계수의 응용

기존의 입지계수는 전체의 특정산업 생산액 비중에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 생산액 비중의 비율로 나타냈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산액 대신 임산물 생산액을 적용하였다. 춘천시에서는 밤이 8.3으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임산물은 도라지로 2.5이었다. 원주시는 생표고가 7.0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초액이 4.0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홍천군은 잣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송이버섯은 2.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횡성군은 수지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목초액 1.7, 더덕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에서는 생표고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임산물은 취나물로 2.5이었다. 철원군에서는 도토리가 32.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임산물은 고사리로 1.4이었다. 화천군은 고사리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릅은 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양구군은 고사리와 취나물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제군의 임산물계수가 가장 높은 임산물은 수액으로 6.2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임산물은 도라지로 2.4이었다.

송이버섯의 임산물계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표고의 임산물계수는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평창군, 화천군 등의 순이었다. 밤은 춘천시, 원주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잣은 홍천군, 춘천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토리는 철원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수지는 원주시, 횡성군만 생산되는

표 4. 강원산간내륙권역의 임산물계수.

|     | 송이<br>버섯 | 생표고 | 밤   | 잣   | 도토리  | 수지  | 산양삼 | 고사리 | 도라지 | 더덕  | 두릅  | 취나물 | 수액  | 목초액 |
|-----|----------|-----|-----|-----|------|-----|-----|-----|-----|-----|-----|-----|-----|-----|
| 춘천시 | 0.1      | 1.2 | 8.3 | 2.4 | 1.1  | 0.0 | 0.1 | 2.0 | 2.5 | 0.3 | 1.1 | 1.7 | 2.2 | 0.0 |
| 원주시 | 1.7      | 7.0 | 3.2 | 0.1 | 1.2  | 3.0 | 0.1 | 1.0 | 0.6 | 0.1 | 2.8 | 0.5 | 0.0 | 4.0 |
| 홍천군 | 2.9      | 1.0 | 0.2 | 3.8 | 0.1  | 0.0 | 0.1 | 2.3 | 1.7 | 0.1 | 1.2 | 1.4 | 0.2 | 0.1 |
| 횡성군 | 0.1      | 0.3 | 0.6 | 0.1 | 0.0  | 1.9 | 1.5 | 0.1 | 0.2 | 1.6 | 0.3 | 0.2 | 0.0 | 1.7 |
| 평창군 | 0.3      | 2.9 | 0.0 | 1.3 | 1.1  | 0.0 | 1.4 | 0.9 | 0.8 | 0.7 | 2.0 | 2.5 | 0.0 | 0.3 |
| 철원군 | 0.0      | 0.0 | 1.1 | 0.3 | 32.9 | 0.0 | 0.0 | 1.4 | 0.3 | 0.1 | 1.0 | 0.7 | 0.0 | 0.0 |
| 화천군 | 0.0      | 1.8 | 0.9 | 0.0 | 0.4  | 0.0 | 0.5 | 2.8 | 1.2 | 1.2 | 2.1 | 1.5 | 1.9 | 0.1 |
| 양구군 | 2.3      | 0.1 | 1.1 | 0.2 | 0.0  | 0.0 | 0.0 | 2.8 | 2.0 | 1.0 | 0.9 | 2.8 | 0.0 | 0.0 |
| 인제군 | 2.3      | 0.3 | 0.7 | 1.5 | 0.4  | 0.0 | 1.7 | 0.5 | 2.4 | 0.7 | 1.5 | 1.7 | 6.2 | 0.0 |

표 5. 방법별 표준화 값의 합.

|     | 송이<br>버섯 | 생표고     | 밤       | 잣       | 도토리     | 수지      | 산양삼   | 고사리   | 도라지   | 더덕      | 두릅    | 취나물   | 수액      | 목초액     |
|-----|----------|---------|---------|---------|---------|---------|-------|-------|-------|---------|-------|-------|---------|---------|
| 춘천시 | 13.6     | 190.9   | 1,055.3 | 634.8   | 140.1   | 0.0     | 17.1  | 279.2 | 367.3 | 207.6   | 168.9 | 300.2 | 223.2   | 0.0     |
| 원주시 | 300.3    | 1,163.8 | 436.8   | 15.9    | 162.6   | 331.7   | 17.1  | 149.9 | 90.4  | 71.9    | 428.8 | 84.1  | 3.3     | 756.8   |
| 홍천군 | 901.7    | 283.8   | 50.6    | 1,520.7 | 17.8    | 0.0     | 18.3  | 626.1 | 488.5 | 127.9   | 327.3 | 441.5 | 47.4    | 22.9    |
| 횡성군 | 42.7     | 158.5   | 346.9   | 63.8    | 26.7    | 1,076.2 | 883.4 | 72.5  | 110.8 | 1,992.9 | 194.7 | 113.1 | 19.4    | 1,109.3 |
| 평창군 | 73.0     | 626.8   | 0.0     | 427.2   | 211.1   | 0.0     | 259.6 | 174.9 | 157.5 | 579.6   | 400.8 | 593.4 | 0.0     | 64.7    |
| 철원군 | 0.0      | 0.0     | 99.0    | 59.9    | 2,975.0 | 0.0     | 0.0   | 138.8 | 31.2  | 38.3    | 106.2 | 97.3  | 0.0     | 0.0     |
| 화천군 | 0.0      | 387.0   | 161.6   | 8.2     | 64.0    | 0.0     | 85.7  | 525.3 | 234.5 | 974.8   | 427.1 | 334.6 | 293.0   | 18.5    |
| 양구군 | 535.8    | 12.9    | 211.9   | 51.9    | 9.0     | 0.0     | 0.0   | 558.2 | 415.7 | 812.6   | 186.0 | 684.9 | 4.6     | 0.0     |
| 인제군 | 579.1    | 71.8    | 143.5   | 535.1   | 89.4    | 0.0     | 360.9 | 112.9 | 558.8 | 588.4   | 345.6 | 450.2 | 1,155.3 | 0.0     |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0이었다. 산양삼은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에서 1을 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산나물류인 고사리,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은 다른 임산물과 달리 9개 모든 시군에서 생산하고 있다. 고사리는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라지의 임산물계수가 높은 지역은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덕은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의 임산물계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두릅은 횡성군, 양구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이 넘었다. 그 중 원주시, 화천군, 평창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나물의 임산물계수가 높은 지역은 양구군, 평창군, 춘천시, 인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액은 9개 지역 중 4개 지역만이 0 이상이었으며 그 중 높은 지역은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등의 순이었다. 목초액은 원주시, 횡성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종합 고찰

지역별 품목특화, 품목별 지역특화, 임산물 계수 등 세 가지 방법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각 방법별 평균값을 100으로 하여 표준화 하였다. 각 방법에서 얻은 표준화 시킨 값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합산하였다.

표준화 값이 높은 임산물은 춘천시에서는 밤, 원주시에서는 생표고, 홍천군에서는 잣, 횡성군에서는 더덕, 평창군에서는 생표고, 철원군에서는 도토리, 화천군에서는 더덕, 양구군에서는 더덕, 인제군에서는 수액으로 나타났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원내륙 산간권역의 9개 시군에서 특화 할 수 있는 임산물을 선정하기 위해 시군별 각각의 임산물 비중과 임산물 품목별 시군의 비중, 입지계수를 응용한 임산물계수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춘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산물 생산액이 그리 높지 않았다. 춘천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은 표준화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밤이다. 원주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은 지역별 및 품목별 비중, 임산물계수가 가장 높은 생표고이다. 원주시의 생표고는 지역특산물로도 지정되어 있다. 홍천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은 표준화한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잣이다. 홍천군은 잣을 이미 지역명품 특산물로 지정하여 활발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횡성군에서는 더덕이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로 나타났다. 횡성군에서는 더덕을 지역특산물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더덕아가씨선발대회 등의 축제를 거행하고 있다. 평창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은 표준화한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생표고이다. 철원군에서 특화 할 수 있는 임산물은 표준화 값이 다른 임산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도토리이다. 화천군에서는 더덕이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로 나타났다. 화천군도 더덕이 특산물로 지정되어 있다. 양구군은 더덕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표준화 값이 더 높은 화천군과 인접지역이고 특화임산물을 다양화하기 위해 더덕 대신 두 번째로 높은 취나물을 특화 할 수 있는 임산물로 하였다. 양구군에서는 곰취축제를 개최하는 등 취나물을 특산물로 지정하고 있다. 인제군에서는 표준화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액이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특화 작물을 선정하였지만 실제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배후 시장의 규모와 판매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원주시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도권 및 인천으로의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다. 홍천군은 홍천 이북 지역의 임산물 생산의 집결지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철원군의 유통망은 강원지역보다는 포천을 경유하여 수도권으로 연결되어 있다.

향후 배후 시장의 규모, 유통구조, 지역들의 정책 방향까지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의 차별성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산촌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및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용문헌

1. 광준수. 2003. 산림자원을 이용한 단기임산물 소득증대 방안.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심포지엄 145-191.
2. 김의경, 정병현, 김대현. 2000. 단기소득임산물의 유통경로 및 산지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8(1): 11-27.
3. 산림청. 2005. 임산물생산통계. 산림청
4. 어명근, 장철수. 2005. 한, 일 임산물 관세구조와 경쟁력 분석. 농촌경제 28(1): 59-79.
5. 윤화영. 2005. 단기소득임산물의 소비자 구매형태에 따른 유통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채류와 버섯류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유통연구 22(4): 87-107.
6. 이경일. 2003.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정책방향. 단기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심포지엄 117-143.
7. 이경일, 장우환. 2003. 우리나라 단기소득임산물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임학회지 92(4): 367-373.
8. 이춘근. 2006.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9. 장철수, 이상민. 2006. 한·미·캐나다 임산물 교역동향과 관세구조 분석. 산림경제연구 14(2): 1-18.